

## 역사소설 『통곡』과 입체적 역사로서의 가치

김재홍\*

### -차 례-

1. 서론
2. 역사와 역사소설
  - 2.1 입체적 역사로서의 역사소설
  - 2.2 역사소설론의 전형성과 입체성
3. 입체적 역사로서의 『통곡』의 가치
  - 3.1 『통곡』의 역사적 보편성
  - 3.2 디테일의 기록성
4. 결론

---

\* 가톨릭대학교 문화여성대학원 초빙교수

## [국문초록]

1948년 『백민』에 단편 「번요(煩擾)의 거리」를 발표하며 등단한 류주현은 『조선총독부』, 『대한제국』, 『대원군』, 『파천무』, 『군학도』 등의 대작을 연달아 발표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해석과 재해석을 통해 현재의 문제에 깊이 천착한 작가였다. 그 가운데 『통곡』은 1969년 동아일보에 연재된 역사소설로 1972년 전체 10권으로 발간된 전집에 3권으로 분책되어 출판되었다.

그런데 류주현에 대한 평단과 학계의 평가는 대체로 인색한 편이다. 크게 보면 역사소설가라는 인상이 1950년대와 60년대 초반 그의 중단편 소설에 대한 탐색을 제한했고, 전후문학이나 1950년대 소설문학을 다룰 때에도 배제되는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 대중적 지면으로 분류되는 신문 연재를 통해 다수의 작품을 발표한 탓에 과도한 외면을 받았다고도 볼 수도 있다.

본고는 역사소설은 그 자체가 역사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고 보았다. 역사소설은 다루고 있는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제한경을 작품의 무대로 전제하는 것이고, 그것을 소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방식으로 상황 설정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한 보고성과 시대적 특수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역사소설은 역사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고 본 것이다.

『통곡』은 세 가지 관점에서 역사적 보편성과 기록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첫째 백성의 관점에서 백성의 안위와 안녕을 지향한 점, 둘째 국가의 내적 혼란은 결국 외침을 야기한다는 정치사적 관점, 셋째 인간적 사랑의 관점 등에서 보편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통곡』은 디테일의 측면에서 입체적 역사로서의 기록적 가치를 획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역사소설은 역사적 사실(사건)의 소설적 입체화를 통해 역사 지식의 전승과 역사관 형성에 기여한다. 또한 역사적 사실의 배경이 되는 해당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재구성함으로써 역사 현장의 기록자 역할을 한다. 궁극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통해 자기 시대의 과제와 문제의식을 환기함으로써 과거를 통해 현재를, 현재를 통해 미래를 사

유하는 입체적 역사학의 지평에 도달한다. 바로 이 점이 류주현의 『통곡』이 오늘날까지 의미를 갖는 이유이다.

**주제어** : 류주현, 역사, 역사학, 역사소설, 입체성, 보편성, 보고성, 특수성, 고유성

## 1. 서론

1948년 『백민』에 단편 「번요(煩擾)의 거리」를 발표하며 등단한 류주현은 『조선총독부』(5권), 『대한제국』(5권), 『대원군』(3권), 『파천무』(3권), 『통곡』(3권), 『군학도』(2권) 등의 대작을 연달아 발표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해석과 재해석을 통해 현재의 문제에 깊이 천착한 작가였다. 그는 1921년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나 1982년에 작고했다. 생전에 『류주현대표작선집』 12권을 간행했고, 사후에 3권이 추가돼 모두 15권에 이르는 방대한 작품을 남겼다.<sup>1)</sup> 이밖에도 소설집 『자매계보』(1953년), 『태양의 유산』(1958년), 『남한산성』(1975년), 『장씨일가』(1976년), 『신의 눈초리』(1977년), 『죽음이 보이는 안경』(1980년)을 펴내는 등 장편과 단편을 넘나드는 활달한 작품 세계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류주현에 대한 평단과 학계의 평가는 대체로 인색한 편이다. 크게 보면 역사소설가라는 인상이 1950년대와 60년대 초반 그의 중단편 소설에 대한 탐색을 제한했고, 전후문학이나 1950년대 소설문학을 다룰 때에도 배제되는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 대중적 지면으로 분류되는 신문 연재를 통해 다수의 작품을 발표<sup>2)</sup>한 탓에 과도한 외면을 받았다고도 볼 수도 있다. 아울러 “단편소설에 비하여 장편소설은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당대 비평계의 판단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그가 장편소설 작가로 각인되는 까닭에 단편소설의 성취까지도 폄하되어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진단”<sup>3)</sup>이라는 지적도 있다.

1) 장편소설과 작품집 등 간행된 책자의 숫자가 아니라 작품별 편수에 대한 황혜경의 집계에 따르면, 류주현은 장편 26편, 중단편 1백여 편 등을 발표했다. 황혜경, 「류주현 소설의 이분법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한 인물 유형과 열린 결말 연구」, 『픽션과 논픽션』(제4집), 픽션과논픽션학회, 2022, 257쪽.

2) 류주현은 1960년대에 『분노의 강』(부산일보), 『언덕은 폭풍설』(서울일일신문), 『너와 나의 시』(매일신문), 『장미부인』(한국일보), 『부계가족』(국제신문), 『조선총독부』(신동아), 『대원군』(조선일보), 『녹수는 님의 정』(서울신문), 『새마을의 신부들』(부산일보), 『대한제국』(신동아), 『통곡』(동아일보), 『군학도』(서울신문), 『백조 산으로』(조선일보) 등 13편을 발표했고, 1970년대에는 『상아의 문』(중앙일보), 『육망의 저택』(여성중앙), 『우수의 성』(중앙일보), 『황녀』(문학사상), 『파천무』(중앙일보), 『대치선생』(서울신문), 『모계가족』(주부생활), 『인간군도』(한국문학), 『배덕시대』(매일신문), 『금환식』(중앙일보) 등 10편을 포함해 도합 23편을 신문 지면을 통해 발표했다.

김윤식은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와 역사 자료에 근거하지 않는다면서 역사소설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특히 신문 연재 역사소설에 대해 “30년대에 융성했던 역사소설은 이후 일제 말기의 암흑기, 해방공간과 6·25의 혼란기, 단편이 주류를 이룬 5,60년대를 거치며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루지는 못하였다”면서 “박종화, 방인근 등 30년대 역사소설의 작가들과 류주현, 김성한 등 해방 이후 등장한 작가들에 의해 통속적인 신문연재소설로서 겨우 명맥을 이어오는 정도에 그쳤다.”<sup>4)</sup>고 비판한 바 있다.

권영민도 “전후문학의 대표적인 작가로 지목되었던 김성한, 장용학, 오상원, 유주현<sup>5)</sup>, 선우휘, 손창섭 등의 변모가 특징적”이라면서 류주현에 대해 “대중적인 역사물에 집착함으로써 격렬했던 1950년대의 창작 의욕과는 상반된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sup>6)</sup>고 비판적으로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류주현의 이러한 변화는 “특히 역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나 투철한 역사의식의 소산과는 거리가 먼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의 이야기화’에만 주력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소설가들이 역사소설을 써 왔지만, 해방 이후 작가로서 특히 각광을 받은 사람으로 류주현을 들 수 있다”<sup>7)</sup>면서 박종화와 함께 류주현의 역사소설을 집중 조명한 홍성암의 연구 성과는 주목된다. 그는 역사소설의 양식을 (1)영웅·전기적 성격, (2)민중의식 구현 성격, (3)가족사·연대기적 성격 등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하면서 류주현의 작품을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영웅·전기적 성격’의 역사소설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민족 수난기에 외세에 대한 적개심 표출과 구국 영웅에 대한 갈망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면서, 특

3) 홍기돈, 「‘텍스트’로서 파악하는 실록대하소설의 의의와 서사전략 - 유주현의 『조선충독부』와 『대한제국』에 대하여」, 『영주어문』(제49권), 영주어문학회, 2021, 189쪽.

4) 김윤식정호용,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4(1판3쇄), 500쪽.

5) 연구자에 따라 柳周鉉을 류주현 또는 유주현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목사 류주현 문학상’을 주관하는 여주문화원의 표기를 따르기로 한다. 다만, 인용문의 필자가 ‘유주현’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원문대로 쓴다.

6)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93(1판1쇄), 195쪽.

7) 홍성암, 「역사소설의 양식 고찰 - 해방 이후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제11집),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7, 288쪽.

별히 《통곡》의 플롯과 인물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홍성암의 연구는 드물게 발견되는 류주현 작품론 가운데서도 역사소설을 대상으로 한 희소한 사례에 속한다.

이밖에도 김명임은 류주현의 1950년대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그의 소설에 나타난 ‘아버지’를 통해 한국전쟁과 가족의 해체·분열 양상에 주목했다. 김명임은 “류주현의 초기단편들은 아버지의 부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1950년대의 주류적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한국전쟁의 상처를 회복하고자 하는 몸부림으로서 “아버지를 부정하지만 한편으로는 완벽한 새로운 아버지를 꿈꾸는”<sup>8)</sup> 시대적 요청에 대응하는 작품 세계를 보여준 것으로 보았다. 홍기돈도 류주현의 단편 소설을 분석한 바 있다. 그는 류주현의 마지막 작품집 『죽음이 보이는 안경』을 “삶의 의미에 관한 류주현의 태도가 집약된 소설집”<sup>9)</sup>이라면서 ‘연기설에 묶인 주체’와 ‘완전한 자유를 지향하는 주체’라는 삶에 대한 두 가지 대립되는 경향을 모두 보여준 세계로 보았다.

황혜경도 류주현의 초기 작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의 작품은 “이데올로기나 주류의 분류에 포섭되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면서 “우리의 전후문학 담론이 미처 품지 못한 범주에 대해 재고를 요청”<sup>10)</sup>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황혜경은 특히 1950년대 초기 작품들의 세계를 세 가지 특징<sup>11)</sup>으로 정리하면서 한국전쟁이라는 거대한 이념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류주현은 한편으로 경도되지 않는 ‘경계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비극성의 강조나 희망의 예견이 아닌 ‘질문의 형

8) 김명임, 「류주현 소설에 나타난 ‘아버지 찾기」, 『한국문예비평연구』(제23호), 2007, 22~23쪽.

9) 홍기돈, 「삶에 대한 인식의 두 경향 : 연기설에 묶인 주체와 '완전한 자유'를 지향하는 주체 - 류주현 소설집 『죽음이 보이는 안경』에 대하여>, 『이상리뷰』(17호), 이상문학회, 2021, 275쪽.

10) 황혜경, 앞의 글, 26쪽.

11) 첫째, 초기 단편에 나타난 그의 서사기법은 이분법적 인식론에 근간한다. 둘째, 인물들은 어느 쪽의 사상적 경향에 경도되기보다는 이분법의 세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경계인의 모습을 보이며, 이는 능동적, 초월적 자기 선택이 아닌 내몰린 자의 특징을 보인다. 셋째, 소설은 비극성의 강조나 희망의 예견이라는 결말보다는 열린 결말의 형식을 통해 전망 없는 세계를 투사하는 식으로 당대 개인의 고뇌를 전시하며 질문의 층위로 끝을 맺는다. 황혜경, 앞의 글, 25~26쪽.

식'을 통해 '열린 결말'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류주현이 작고한 지 십년 만에 소설가 오인문의 편집으로 발간된 『류주현 연구』는 제1부 문학론, 제2부 인간론, 제3부 류주현의 고백록 등 상당히 방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작가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신동욱, 홍기삼, 김상선, 이영일, 윤병로, 천이두, 이어령, 유종호, 임현영, 구창환, 김양수, 이내수, 홍사중, 목촌의, 유현종 등의 글은 비록 단편적 접근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어 류주현의 작품 세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참고할 만한 자료이다.

역사소설 자체에 대한 언급은 앞서 본 대로 김윤식과 권영민을 포함해 조연현, 김우중, 김장동, 조동일, 백철, 백낙청, 이철범 등<sup>12)</sup> 대체로 문학사나 소설사의 관점에서 개괄적으로 접근한 사례가 많은 가운데 '텍스트의 관점'에서 실록대하소설을 이해해야 한다는 홍기돈의 또 다른 논의는 주목을 끈다.<sup>13)</sup> 그는 류주현의 "실록대하소설<sup>14)</sup> 『조선총독부』는 1964년 한일외교 정상화 방침에 대한 대응 성격을 지닌다."면서 "공백 상태에 머물렀던 시기의 방대한 자료를 집대성하여 복원함으로써 역사 교재로서의 성격을 획득"<sup>15)</sup>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야 하는 역사소설에 대해서는 완전한 허구적 구성물과 다른 평가 기준을 필요로 한다는 것으로, 그간 부정적으로 취급해 온 학계와 평단의 시각과 다른 관점으로 주목된다.

12) 이와 같은 연구 성과 가운데 저서로는 조연현, 『현대 한국작가론』, 문명사, 1970., 김우중, 『한국현대소설사』, 선명문화사, 1974., 김장동, 『조선조역사소설 연구』, 이우출판사, 1986., 조동일, 『한국문학통사』(제5권), 지식산업사, 2005. 등을 꼽을 수 있으며, 평론으로는 백철, 「역사적 사실과 현대작품」, 『자유문학』, 1963. 5., 백낙청, 「역사소설과 역사의식」, 『창작과 비평』, 1967., 이철범, 「역사의식과 가치관」, 『현대문학』(181호), 1970., 김윤식, 「역사소설의 양식개념고」, 『문학사상』, 1976. 4., 등을 들 수 있다.

13) "실록대하소설을 '텍스트(text)' 관점에서 규정하고 콘텍스트(context)와의 상관 맥락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요청된다." 홍기돈, 앞의 글, 193쪽.

14) '실록대하소설'에 대해서는 홍성남도 "'實錄'이라는 이름으로 reality를 강조하고 역사적으로 사소한 인물이나 비역사적 인물의 허구적 행동을 통하여 역사의식을 투영시키는 기법"이라면서 류주현의 『조선총독부』, 『대한제국』, 『황녀』 같은 작품을 '실록대하소설의 새로운 경향'이라고 밝혔다. 홍성남, 앞의 글, 292쪽.

15) 홍기돈, 앞의 글, 189쪽.

홍기돈의 주장은 ‘실록대하소설’로 한정해 작품을 텍스트로 이해하고, 그 텍스트가 놓인 콘텍스트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것으로 어디까지나 문학 범주 내부 문제였다. 본고는 더 나아가 역사소설은 소설로서의 예술성뿐만 아니라 역사 기록으로서의 가치까지 갖는다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역사소설은 다루고 있는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제환경을 작품의 무대로 전제하는 것이고, 그것을 소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방식으로 상황을 설정하게 된다. 따라서 강한 보고성과 시대적 특수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역사소설은 역사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고 본다.

『통곡』도 인조반정 이후부터 병자호란까지의 시기를 무대로 한 역사소설이다. 인조, 이귀, 김유, 임경업, 이괄, 윤인발 등 실존 인물도 등장하지만 옥녀(자련, 매환), 괴승 독보 등 가공의 인물도 나온다. 작품은 실록에 입각해 역사적 사실을 서사 전개의 골격으로 삼아 진행된다. 정치적 사건은 물론이고 법제와 언어, 복식, 음식, 생활풍속 등이 시대적 환경을 고려하여 취택되고 구사되었다.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은 픽션으로서의 소설을 넘어 시대적 상황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효과를 지니게 되며, 이것이 역사 기록으로서의 가치까지 지니게 하는 지점이다. 따라서 역사소설을 텍스트로 이해하고 콘텍스트와의 관계 맥락에 따라 평가하는 문제는 곧 해당 작품이 구현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의 입체성과 기록적 가치를 평가하는 일이 될 것이다.

## 2. 역사와 역사소설

### 2.1 입체적 역사로서의 역사소설

역사는 실체 없는 실체이다. 역사상의 사실은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도 않고, 또한 존재할 수도 없으며 결코 순수한 것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없다.<sup>16)</sup> 역사학은 하나의 추상(抽象)이다. 역사학은 그 역사

16) E. H. 카, 『역사란 무엇인가』(박복희 옮김), 청년사, 1985, 29쪽.

를 실체로써 체험한 적이 없는 역사가의 상상력과 재해석의 소산이다. 역사가는 언제나 “그것이 진정 어떠하였는가”(Wie es eigentlich gewesen)<sup>17)</sup>를 사표로 삼지만, 어디까지나 ‘현재의 눈’을 통해 본 과거 일 따름이다. 역사는 현재주의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강성했던 북아프리카 마그레브 지역의 제국들이 몰락한 과정을 살핀 이븐 할둔도 “역사적 정보들 가운데 오류와 근거 없는 추정은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으며, 흔히 발견되는 요소”<sup>18)</sup>라고 생각했다. 때문에 그는 “역사적인 사실과 성찰을 다루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순서에 따라 배열**”(강조 - 인용자)<sup>19)</sup>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할둔은 “나는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고,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뚫고 들어가기에 내가 너무나 무능력 하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sup>20)</sup>고 밝혔다.

또한 로마 제국의 쇠퇴를 돌이켜 본 에드워드 기번도 “역사가는 대도시의 몰락과 약탈을 기술할 때에는 언제나 똑같은 재난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해야 할 운명에 처해 있다.”<sup>21)</sup>면서 역사학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서술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했다. 역사가는 자신 앞에 놓인 수많은 “사건들을 엄밀하게 서로 구분 짓지 않으면 사건의 복잡다단함에 압도될 것”<sup>22)</sup>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르고 붙이는 편집과 재해석의 열망에 휩싸인다는 생각이다.

이처럼 역사학이 결국 역사 서술자의 현재 시점에 따라 편집되고 재해석되는 운명이라면 역사소설 역시 소설가의 편집과 재해석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 역사학이 현재주의의 위협에 노출되는 만큼 역사소설 또한 그런 위협에 직면한다. 현재주의가 오늘의 관점에서 과거를 재단하는 오류라면, 역사학과 역사소설 또한 오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오류라기보다는 역사학과 역사소설의 본

17) E. H. 카, 앞의 책, 13쪽.

18) 이븐 할둔, 『역사서설』(김호동 옮김), 까치, 2009(3쇄), 21~22쪽.

19) 이븐 할둔, 앞의 책, 24쪽.

20) 이븐 할둔, 앞의 책, 27쪽.

21) 에드워드 기번, 『로마 제국 쇠퇴사』(데로 손더스 편집, 황건 옮김), 까치, 2010(2판4쇄), 594쪽.

22) 에드워드 기번, 앞의 책, 301쪽.

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추상으로서의 역사학과 미적 서사인 역사소설은 역사가와 소설가의 선택과 배제에 의한 재해석에 의하지 않고는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학의 목적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있는 것이라면, 역사소설이 다루는 특정한 시대와 다양한 인물의 서사도 결국 오늘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소설 양식의 고유한 형식이 된다. 역사학이 선택과 배제의 원리를 따르는 만큼 역사소설도 그러한 원리에 따라 편집과 재해석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관건이 되는 것은 원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당화시켜주는 윤리적 보편성과 미적 고유성에 있을 터이다.

역사학은 과거를 통해 오늘을 사유하며 동시에 오늘을 위하여 과거를 사유한다. 사마천은 “지금 시대에 살면서 옛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하는 것은 이를 본보기로 삼으려는 이유”라면서 고금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후들이 존중받고 총애받거나 또는 버림받고 모욕당한 이유를 살펴보면 역시 그 시대에 성패와 득실이 존재하고 있다.”<sup>23)</sup>고 밝혔다. 과거를 본보기로 삼아 오늘을 도모한다는 역사학의 보편적 발상을 사마천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는 역사소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선택과 배제, 편집과 재해석의 원리가 적용되는 역사학과 역사소설의 디테일과 관련하여 에두아르트 폭스의 언급은 참고할 만하다. 그는 “역사를 서술할 경우 가장 큰 목표는 바로 과거의 재구성, 즉 각 시대의 특징적인 여러 가지 사실을 모아서 하나의 골격을 만듦으로써 과거의 현실을 원래대로 재구성하는 것”이라면서 그것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과거가 독자의 눈에 부조(浮彫)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난다면”<sup>24)</sup> 그 목표는 달성된 것으로 보았다. 폭스 역시 역사 서술에 있어 서술자의 선택과 배제에 의한 ‘재구성’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이점에서 역사소설을 표방하는 작품들에 대한 김윤식의 비판은 입체적 역사으로서의 역사소설을 탐색하는 데 의미가 있다. 김윤식은 “대부분은, 역사 자료와 국사학계의 연구 성과에 근거하기보다는 작가의 상

23) 사마천, 『사기 表序書』(정범진 외 옮김), 까치, 1999(3판), 34쪽.

24) 에두아르트 폭스, 『풍속의 역사 I - 풍속과 사회』(박종만 옮김), 까치, 1995(18판), 5쪽.

상력에 더 크게 의존함으로써, 실제와는 많이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객관적 현실에 근거한, 그리고 그것에 의해 검증받지 않은 것의 진실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sup>25)</sup>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 역사소설의 한계를 역사학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상상력에 있다고 본 것이다.

신문 연재소설은 대체로 역사물과 현대물 각각 하나씩 신는 것이 일제시대 이래의 오랜 관행이다. 역사소설이 이처럼 큰 대접을 받아 온 것은 대중의 호응이 컸기 때문일 것인데, 이에 힘입어 지금까지 씌어진 역사소설의 수는 엄청나다. 그러나 대체로는 역사적 사실(史實)의 사사화(私事化), 낭만화에 기울거나 과거와 현재의 무매개적 동일시 또는 병치에 함몰되어 역사적 진실성의 확보에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70년대 들어 씌어진 대하역사소설들이 이 같은 한계를 넘어 큰 진전을 보이지만 한 시대 우리 사회의 상층과 하층, 토대와 상부구조를 함께 아우르는 총체성의 획득에까지 도달한 작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sup>26)</sup>

김윤식은 또 한국의 역사소설이 이와 같은 한계에 봉착하게 된 원인으로 (1)작가의 목적의식이 객관 현실의 규정성을 압도할 때 생겨나는 윤리적 이분법의 인식틀, (2)한 사회를 그 역동적·총체적 변화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파악하지 못하는 논리적 분석력과 종합력의 부족, (3)그리고 풍속사·문화사·경제사 등 과거의 소설화에 필수적인 역사학 제 분야의 연구 불충분 등을 제시했다. 한마디로 한국의 역사소설은 리얼리즘 미달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조동일은 역사소설은 영웅소설에서 유래했다고 말했다. 외세에 대한 분노의 표출과 국난 극복의 심리적 대체물로서 역사적 영웅을 등장시킨 영웅소설이 있다면, 그 자리에 평범한 인물을 위치시킴으로써 근대적 역사소설이 형성되었다는 주장이다. 조동일은 “영웅소설과 역사소설의 중간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일련의 작품에서 역사소설로의 전환이 탐색되어,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문학이 근대문학으로 바꾸게 했다.”<sup>27)</sup>면서 근대성과 역사소설의 양식성을 등치시키기도 했다. 이는

25) 김윤식·정호웅, 앞의 책, 499~500쪽.

26) 김윤식·정호웅, 앞의 책, 518쪽.

두 형식의 소설이 모두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지만, 주요 인물의 위상과 성격에 따라 영웅소설과 역사소설로 준별된다는 주장으로서 근대소설은 영웅적 인물이 아니라 범인적(凡人的) 인물을 주인공으로 취한다는 생각이다. 이는 르네상스와 인문주의 이후 ‘개인의 탄생’<sup>28)</sup>을 근대성의 기준으로 삼아 왔다는 점에서 타당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류주현의 『통곡』은 반역의 인물 이괄도 등장하고 그에 대적하는 임경업도 나오지만, 이야기의 중심을 끌여가는 중심인물은 20대의 청상과부 옥녀(자련, 매환)이다. 그녀는 양반가의 외동딸로 혼례를 치르기도 전에 정혼자가 갑자기 사망하자 일부종사를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청상과부의 처지가 되었다. 이는 조선 사회의 윤리의식에 대한 류주현의 부정적 인식을 함축한다. 어느 날 옥녀는 이괄의 책사 윤인발에게 겁탈을 당해 그와 정인(情人) 사이가 된다. 또 괴승 독보의 권유로 이괄과 대적하는 임경업과도 상관하여 그를 정랑(情郎)으로 삼는다. 이는 반정으로 집권한 인조의 정통성과 반란으로 몰락한 이괄의 정당성이 결국 위민에 있어야 한다는 작가의 정치의식을 표상한다. 한마디로 옥녀는 인조반정과 병자호란 사이에 벌어진 모순된 역사와 역설적인 상황을 온몸으로 품은 인물로 조동일이 주장한 역사소설의 근대적 가치를 표현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소설은 역사적 사실(사건)의 소설적 입체화를 통해 역사 지식의 전승과 역사관 형성에 기여한다. 또한 역사적 사실의 배경이 되는 해당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재구성함으로써 역사 현장의 기록자 역할을 한다. 궁극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통해 자기 시대의 역사적 과제와 문제의식을 환기함으로써 과거를 통해 현재를, 현재를 통해 미래를 사유하는 입체적 역사의 지평에 도달한다. 이것이 평단과 학계의 태부족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역사소설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며, 『통곡』을 통해 우리 시대를 이해하고 미래를 사유해야 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27) 조동일, 『한국문학통사』(제5권), 지식산업사, 2005(4판1쇄), 317쪽.

28) “개별화함으로써 인간의 본질이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 근대적 인간이 태어난다. 인간성(인간의 본질)은 개별화에 있다는 것” 로베르 르그로, 「근대적 인간의 탄생」, 『개인의 탄생』(전성자 옮김), 기파랑, 2022(2판1쇄), 119~120쪽.

## 2.2 역사소설론의 전형성과 입체성

루카치의 전형 이론이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개별성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보편성과 결합시키면서 특수성이 드러나도록 하는 전형적인 성격·줄거리·상황을 표현하는 것이 예술가와 작가의 과제가 된다. 즉 “세부묘사가 본질을 제시하고 본질적인 것을 명백히 하는, 징후적인 성격을 지님으로써만 대상은 이성적으로 조직되어 이성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세부 묘사의 정체성으로서 특수한 것, 전형적인 것으로 고양되기 때문이다.”<sup>29)</sup> 인물 개개인의 언어, 행동, 성격이 개별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서사가 시대적 보편성 위에 설 때 징후적 전형성을 띠게 된다는 주장이다.

역사소설에서 묘사되는 중심적인 운명이 처음부터 민중의 운명과 사회적-인간적으로 깊이 결합되어 있게 됨으로써, 내용상 고전적 역사소설의 문제제기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움직임이 생겨난다.<sup>30)</sup>

이처럼 루카치는 민중성을 반파쇼 역사소설의 근간이자 진정한 역사정신이라고 생각하였다. 물론 이때의 민중성은 인물의 개별성을 지켜 내면서도 사회적 맥락과 이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루카치는 또 기존의 역사소설이 이에 도달하지 못한 과도적 성격에 머물게 된 원인은 (1)혁명적 민주주의가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요구에 머무는 경우, (2)문학적 상상력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모더니즘적이고 잘못된 주관주의적인 견해에 빠진 경우, (3)주체 설정에 있어 상대적인 우연성에 그친 경우, (4)인물들이 민중생활의 구체적인 역사적 토대로부터 성장해 나오지 않는 경우 등이라고 밝혔다.<sup>31)</sup>

“점점 더 힘차게 현실적 민중생활을 묘사하는 데로 방향이 바뀌는 그<sup>32)</sup>의 형

29) 페터 V. 지마, 『문예미학』, 을유문화사, 1993(초판1쇄), 98쪽에서 재인용.

30) 게오르크 루카치, 『역사소설론』(이영옥 옮김), 거름, 1987, 379쪽.

31) 게오르크 루카치, 앞의 책, 365~375쪽.

상화 작업에 대하여 두 가지의 어려운 점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첫째로는 우리가 지적했던 바처럼 그렇게 추상적인 범주들을 근거로 해서는 개별 인간들 각각의 구체적인 삶의 운명들이 민중으로부터 진실되게 형상화될 수가 없다는 점이다. … 둘째로는 이렇게 물신화된 추상적인 범주들은 필연적으로 숙명론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며, 포이트트방어와 같이 생동감 있게 느끼는, 현실적으로 여러 갈래들로 나뉘어 있는 생활을 아무지게 체험하는 작가라면 그와 같은 숙명론으로 만족해 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sup>32)</sup>

추상적인 범주(가치)가 민중의 생활 현장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추상화된 민중 생활도 생동감 있는 고유한 현장감을 잃어버리고 만다. 루카치는 ‘상층’의 인간들이 아니라 ‘하층’ 민중을 소설의 인물로 전면화시키되 그것을 매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실체로 형상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는 “추상적-도식적 관념론적-비역사적 파악은 실천적으로는 기회주의로 귀착되며, 이론적으로는 이전 혁명들에 대한 이해의 길을 봉쇄하는 데에로 이른다.”<sup>34)</sup>면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라살레에게 보낸 서한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그 핵심 논지를 따라 역사소설론을 전개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작가 페르디난트 라살레가 보낸 편지(1859년 3월 6일자)와 동봉한 논문 「비극 이념에 대하여」에 대해 회신을 보냈다. 라살레는 모두 세 통의 서한을 보냈는데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각각 한 번씩 보냈다. 서신 교환을 통해 라살레의 비극 『프란츠 폰 지킹엔』에 대한 양측의 견해가 오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르크스주의 미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총체성, 전형성 개념이 등장했다. 이는 루카치를 비롯한 후대 이론가들에 의해 ‘지킹엔 논쟁’이라고 불리며 마르크스주의 문예이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먼저 마르크스는 라살레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더

32) 윌터 스코트, 발자크, 레프 톨스토이, 콘라트 페르디난트 마이어와 더불어 루카치가 자주 인용하고 있는 소설가 포이트트방어(Lion Feuchtwanger, 1884-1958)를 말한다.

33) 게오르크 루카치, 앞의 책, 397쪽.

34) 게오르크 루카치, 「지킹엔 논쟁과 유물론 미학의 확립」, 마르크스·엥겔스·라살레외, 『맑스주의 문학예술논쟁』(조만영 엮음), 돌베개, 1989, 123쪽

셰익스피어화 했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설러화 한 것, 즉 개인들을 시대정신의 단순한 전달 도구(메카폰)로 전락시킨 것이야말로 가장 중대한 오류라고 여깁니다.”<sup>35)</sup>라고 비판했다. 마르크스는 단순한 전달 도구가 아니라 당대의 시대적 특성과 조건을 전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을 요구했다. 그것은 단순한 개별적 인물도 아니고, 집합적 대표자로서의 인물도 아니다. 이에 대해 페터 지마는 마르크스가 “드라마의 인물 프란츠 폰 지킹엔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았다.<sup>36)</sup> 지마는 라살레가 자신의 주인공들을 자기의 사회이론의 대변자로 만든 것을 비난한 것으로 이해했다.

엔겔스도 “한 인물의 성격 구성은 그 자가 무엇을 하느냐에 의해서는 물론이고, 또한 그자가 어떻게 그것을 하느냐에 의해서도 이루어집니다.”라며 “극에 대한 당신의 견해가 너무 추상적이며 충분히 현실주의적(realistisch)이지는 못하며, 그렇기 때문에 농민운동을 그의 값할 만큼 박진적(迫眞的)으로 파고들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sup>37)</sup>라고 비판했다(1859년 5월 18일자 서한). 엔겔스는 먼저 라살레의 극이 율격을 지키지 않은 점을 언급하면서, 지나치게 긴 대사 때문에 무대극으로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극중 인물이 (1)무엇을, (2)어떻게 하느냐가 추상성을 벗어나는 효과적인 길이라고 주장했다. 엔겔스는 또 “이념적인 것 때문에 현실주의적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설러 때문에 셰익스피어를 잊어버리지 말 것”<sup>38)</sup>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지킹엔 논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루카치는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적 생산은 어떤 정신적 생산 분야들, 예컨대 시와 예술에 대해서는 적대적이다.`라고 거듭해서 강조”한다면서 “이것은 `화해적`인 현실주의를 통해서도, 주관주의적인 이상화를 통해서도 극복될 수 없고, 오로지 혁명적 현실주의를 통해서만, 즉 자본주의적 발전의 내적 모순

35) 마르크스·엔겔스·라살레 외, 「마르크스가 베를린의 라살레에게 - 1859년 4월 19일 런던에서」, 앞의 책, 39~40쪽.

36) 페터 V. 지마, 앞의 책, 89쪽.

37) 마르크스·엔겔스·라살레 외, 「엔겔스가 베를린의 페르디난트 라살레에게 - 1859년 5월 18일 맨체스터에서」, 앞의 책, 46~48쪽.

38) 마르크스·엔겔스·라살레 외, 「엔겔스가 베를린의 페르디난트 라살레에게 - 1859년 5월 18일 맨체스터에서」, 앞의 책, 1989, 48쪽.

들을 가차 없는 명백성으로써, 불퇴전의 경멸을 담은 진리 혹은 혁명적-비관적 진리로써 폭로하는 혁명적 현실주의를 통해서만 극복될 수가 있다.”<sup>39)</sup>고 말했다. 이것이 루카치가 내린 결론이다.

한스 코흐도 “라살레의 극작품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문학과 예술에서의 현실주의론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 올렸다.”면서 그들이 라살레에게 보낸 서한은 “문학에서의 현실주의에 대한 예술적 요구가 당적 입장 및 과학적으로 근거지어진 당적 이해라는 사상과 그렇게 깊이 있고 근본적으로 연관 지어졌던 경우는 없었다”<sup>40)</sup>고 평가했다. 코흐가 보기에 진정한 현실주의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제시한 바와 같이 (1)당적이고 당파적이며, (2)과학적 공산주의에 투철할 때 실현되는 것이다.

한편 조남현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에게서 비롯된 전형성 개념이 루카치를 거쳐 뒤시앙 골드만에 이르러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작품은 단순히 현실인식 내지 집단 의식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작품은 특정집단의 의식에 국한된 대단히 높은 수준의 경향을 수렴한 것(응집한 것, 통일한 것)이다. 이때의 의식이란 역동적인 리얼리티로서 생각되어야 하는 것으로 일정한 평형상태를 지향한다. (2) 집단적 이데올로기와 위대한 개인(작가)에 의한 문학적 창조, 철학적 창조, 신학적 창조 사이의 관계는 내용의 일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수준 높은 응집성(coherence)에, 또 구조의 상사성(homology of structure)에 있다. 이러한 창조행위는 집단의식의 내용과는 다른 어떠한 상상적인 내용으로 표현될 수 있다.<sup>41)</sup>

전형성이나 상동성 개념은 마르크스주의 유물론에 근거한 반영론을 따라 제기된 것으로 물질(토대)과 의식(상부구조)의 이원론을 따라 의식은 물질을 반영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정신의 영역에 속하는 문학은 물질의 영역에 속하는 현실 세계를 전형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

39) 게오르그 루카치, 「지키엔 논쟁과 유물론 미학의 확립」, 마르크스·엥겔스·라살레 외, 앞의 책, 1989, 134쪽.

40) 한스 코흐, 「지키엔 논쟁과 문학적 현실주의의 문제」, 마르크스·엥겔스·라살레 외, 앞의 책, 151쪽.

41) 조남현, 『소설원론』, 고려원, 1991(중판), 338쪽.

장이다. 본고에서는 류주현의 『통곡』과 역사소설을 분석할 때 루카치의 전형성과 골드만의 상동성 개념을 받아들여, 거기에 더해 입체성이라는 관점을 추가하고자 한다. 입체성은 순개념적 용어인 전형성이나 상동성과 달리 인물의 성격과 대사, 지문 등을 통해 형성되는 소설적 사건이 갖는 입장감(臨場感)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이는 어떤 역사소설이든 전형성이나 상동성과 별개로 역사적 사건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 3. 입체적 역사로서의 『통곡』의 가치

#### 3.1 『통곡』의 역사적 보편성

류주현의 『통곡』은 1969년 동아일보에 연재된 소설로 1972년 전체 10권으로 발간된 전집에 3권으로 분책되어 출판되었다. 1948년 등단 후 50년대까지 창작집 『자매계보』(1953년), 『태양의 유산』(1958년), 『바람 옥문을 열어라』(1958년), 『아버지의 연인』(1958년) 등 주로 중단편 작업에 열중하던 류주현은 60년대부터 『조선총독부』(1964년), 『대원군』(1965년), 『대한제국』(1968년), 『파천무』(1972년), 『군학도』(1972년), 『황녀』(1973년) 등을 잇달아 발표하며 역사소설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류주현의 역사소설은 대부분 국내적 혼란과 외침의 시대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작품들이다. 특히 실록에 입각해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되 비역사적 인물을 등장시켜 그들의 행동을 확대시킴으로써 소설로서의 허구를 확보하는 방법”<sup>42)</sup>을 구사했다. 이를 홍성남과 홍기돈은 실록대하소설로 부르고 있다.

홍기돈은 특히 “작품을 텍스트로 이해하고, 그 텍스트가 놓인 콘텍스트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통곡』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시각으로 인조반정과 이괄

42) 홍성남, 앞의 글, 292쪽.

의 난, 병자호란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사실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어떤 서사적 연관 속에서 전개되는가를 살펴서 작품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된다.

본고는 역사적 사실과 허구적 서사에 대한 상호텍스트적 고려에 더해 역사소설로서 작품이 구현하고 있는 선택과 배제가 해당 시대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가치까지 획득할 수 있다고 본다. 만일 『통곡』이 실록에 기록된 정치적 사건은 물론이고 법제와 언어, 복식, 음식, 생활풍속 등을 적절히 선택하고 배제함으로써 시대적 상황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면, 이는 소설로서의 작품성만 아니라 역사 기록으로서도 가치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통곡』의 주인공은 옥녀(자련, 매환)이다. 양반택 외동딸로 정혼자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수절을 강요받은 청상과부다. 그러한 그녀의 삶에 역모 세력 이괄의 책사인 윤인발이 들어서고, 그의 가짜 장례식 때 만나게 된 괴승 독보(신혈)를 통해 진압군의 장수 임경업이 끼어든다. 여기에 김자점까지 가세돼 이들 인물의 만남과 헤어짐, 갈등과 긴장이 서사의 기본 구조를 이루고 있다. 옥녀는 반란군과 진압군 모두에 연관되어 인물 자체가 가치중립적인 위상을 갖는다. 이는 또 “종(宗-現王-仁祖)도 이 씨이고 공(琪)도 이 씨인데 누가 한들 어떻고 괄(适, 이괄)도 귀(貴, 이귀)도 이 씨인데 귀가 하는 것을 괄이 한들 어떠냐는 것이 일부의 음성적인 여론이었다.”<sup>43)</sup>와 같은 지문을 통해 류주현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백성의 관점임을 알 수 있다.

류주현은 백성의 관점에서 인조와 이괄의 시대가 백성에게 어떤 위험을 야기했고, 어떤 상처를 주었던가를 성찰했다. 옥녀와 그녀의 남성 편력은 그의 비판적 시대 의식을 구현하기 위해 매우 의도적으로 설정된 것이다. 청상이지만 미인인 옥녀를 일부종사라는 사회적 틀에서 벗어나 여러 남성들과 통정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통해 시대적 상황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었다.

류주현은 「無序」라고 하는 서문에 “나는 1970년대를 살고 있는 작가다. 이 『통곡』을 쓰게 된 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가 없다.”면서 “비록

43) 류주현, 『통곡』(류주현 문제작 역사소설군대전집 5부작 전 10권 제1부, 제1권), 신태양사, 1972, 230쪽.

시대는 삼백여 년을 소급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과 여건이 오늘과 무관할 수 없는 역사이기 까닭에 이 작품을 썼다.”고 밝혔다. 연이어 “전쟁은 최악이지만 불가피할 때는 취해야 하고 비록 자멸을 하더라도 목표는 승리여야 한다.”고 했다. 류주현은 1921년생으로 일제를 겪었고, 6.25 동족상잔까지 체험했다. 그가 『통곡』을 구상하고 쓰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으로, 역사적 수난에 대한 인식이 작품의 시대 배경을 인조반정부부터 병자호란까지로 삼은 이유일 터이다. 그는 “제목이 하필이면 통곡으로 설정된 것을 나는 슬퍼한다.”고도 적었다.

이처럼 백성의 관점에서 백성의 안위와 안녕을 지향한 점에 『통곡』의 역사적 보편성이 있다. “조정이 어지러워 갈수록 민은 민의 편되고, 관은 관의 편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데 조정은 그것을 몰랐다.”<sup>44)</sup> 반정으로 집권한 인조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많은 신하를 역모 죄로 죽였다. 무고한 선비들과 양민들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고통을 당했다. 인조의 조정은 반정공신 이귀와 김유 등이 중심이 돼 자신들 외에는 모두 잠재적 반란세력이라 의심하면서 일종의 공안 통치를 실시했다. 이괄도 반정 공신이었으나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낮은 공훈을 받고 지방(평안도)에 배치되면서 동병(動兵)한 것이었으니, 조정의 공안 통치는 극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sup>45)</sup>

이러한 국내적 혼란기에 여진족 누르하치는 후금을 건국해 대명제국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들은 명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배후에 있는 조선을 통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 출병했고, 그로 인해 양국은 군신지례를 맺은 바 있다. 특히 송시열을 비롯한 선비들은 소중화주의에 빠져 후금의 강한 군사력을 애써 무시하는 등 조선은 국제 정세의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내적 혼란과 국제적 격변 속에서 결국 정묘호란(1627년), 병자호란(1636년)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봉착했고, 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고

44) 류주현, 앞의 책, 236쪽.

45) “광해조(光海朝)를 때려 엮은 새로운 조정이 아직 확고한 기틀을 잡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혁명으로 잡은 조정이라서 또 다른 반격이 염려스러웠다. 그래서 새 조정은 역모사건을 미리 밀고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상금을 주겠다는 방(榜)을 내붙였다.” 류주현, 앞의 책, 105쪽.

고향을 잃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류주현이 이 시대를 소재로 삼은 것은 일제 식민지 경험과 한국전쟁의 참상을 직접 겪은 세대로서 백성의 안위와 안녕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통곡』의 역사적 보편성은 정치사적 관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임진왜란 이후 피폐해진 국가를 추스르고 백성의 안정을 도모하던 광해군은 결국 정치적인 실패 때문에 왕좌를 빼앗겼고, 반정으로 집권한 인조 역시 이괄의 난을 겪고 호란 끝에 삼전도의 치욕을 당했다. 류주현의 시대도 세계정세를 무시한 쇄국 끝에 나라는 식민지로 전락했고, 그로 인해 이념대립 속에서 분단과 동란을 겪었다. 『통곡』은 삼백년의 시차 속에서 다르면서도 같은 상황을 여실하게 그려내고 있는 작품으로 정치사적 보편성을 얻고 있다.

인간적 사랑의 관점에서 『통곡』의 역사적 보편성은 확인된다. 우선 청상과부가 된 옥녀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부모의 사랑이 있으며, 이는 광해군에 의해 강화도에서 살해당한 영창대군의 어머니 대비 김 씨의 사랑과도 같은 것이다. 또 옥녀와 윤인발, 옥녀와 임경업이라는 이성간의 사랑도 있다. 특히 괴승 독보가 천축사 대웅전에서 옥녀를 끌어안고 사념에 잠겼던 것은 승려라는 신분임에도 남녀 사이의 사랑이 갖는 보편성을 함축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후금의 외침을 염려하며 국가와 백성의 안위를 생각하는 임경업 등의 사랑도 있다. 그러니까 《통곡》은 (1)부모와 자식의 사랑, (2)남녀의 사랑, (3)국가와 백성에 대한 사랑 등이 중층적으로 교직되면서 역사적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다고 하겠다.

### 3.2 디테일의 기록성

『통곡』은 다루고 있는 시대가 조선 후기라는 점에서도 역사소설에 부합하는 것이지만, 작품 자체가 이미 현대의 한 보고(報告)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복식, 장례 풍습, 대보름 풍속, 혼례, 굿, 지리, 언어 등과 같은 디테일은 역사소설의 기록적 가치를 확인하게 한다.

이는 소설이 서사 양식으로서 어떤 사건을 전개할 때 수반되는 극적 성격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건의 전개 상 인물이 있고, 배경

이 되는 공간이 있으며,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울려 펼쳐지는 시간이다. 때문에 소설을 읽는 독자는 “한편으로는 독서가 진행되는 시간과 어떤 것들이 읽혀지고 있는 순서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스토리 속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추측되는 시간과 그것들이 발생한 순서에 대해서도 함께 인식”<sup>46)</sup>하면서 작품이 표현하고 있는 극적 상황에 감응하고 다양한 감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사건 구성에 있어 디테일이 요구된다는 사실은 서사이론이 제기하는 기본적 요건이다. H. 포터 애벗은 “사건이나 행위가 없다면 결코 서사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묘사’나 ‘설명’ 또는 ‘논증’이나 ‘서정’ 혹은 이것들의 조합이나 또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결코 서사는 될 수 없다.”<sup>47)</sup>고 주장했다. 뛰어난 작품은 ‘사건’과 ‘행위’를 통한 서사 전개에 있어 세밀한 디테일을 구축해 독자의 주목을 끈다. 독자들은 디테일의 충실성과 사건의 입체성이 보여주는 소설의 세계 안에서 문자에 영상을 입히는 박진감 넘치는 독서 체험을 하게 된다.

얼굴을 가린 장옷만은 연옥색 비단이었으나 개천 바람에 후루룩 소리를 내는 것은 흰 깃치마다. 양갓집 젊은 여자가 상복(喪服)을 입었으면서 상복 입은 것을 남에게 숨기려는 것 같았다.(16쪽)<sup>48)</sup>

도포(道袍) 차림에다 양태가 넓은 갓들을 썼다. 양반이고 선비고 젊은이들이 이 분명하다. 여덟 팔(八)자의 걸음걸이다.(17쪽)

『통곡』 제1장 밀고자의 도입부 ‘꿈 이야기’에 나오는 장면이다. 주인공 옥녀가 정인 윤인발을 찾아가 당일 자신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러 가며 입은 복색이다. 옥녀는 악몽을 꾸었었다. ‘비늘이 시커먼 수십 마

46) H. 포터 애벗, 『서사학 강의』(우찬제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0, 42쪽.

47) H. 포터 애벗, 앞의 책, 35쪽.

48) 본고에서 작품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장 말미에 쪽수를 괄호 안에 표기하기로 한다. 모두 1972년 신태양사에서 간행된 『통곡』(류주현 문제작 역사소설군대전집 5부작 전 10권)이 출처이다.

리의 잉어들'이 연못 위에 나자빠져 있는 꿈이었다. 윤인발이 인조를 몰아내고 선조의 일곱째 아들 인성군 공(珙)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려는 역모 세력의 책사인 줄 모르는 옥녀의 꿈이었다. 그러니까 옥녀는 윤인발의 정확한 정치적 맥락을 알지 못한 채 정랑의 신상에 위험이 올 수 있다는 생각에서 상복을 입은 몸으로 밤길을 걸었다. 다음은 인성군택에서 장례를 도모하고 나오는 일단의 선비들을 표현한 문장이다. 상부(孀婦)지만 양갓집 규수인 옥녀와 정치적 야심이 가득한 선비들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이들의 복색과 행동에 대한 묘사로 매우 입체적인 영상이 재현되고 있다.

『통곡』에 등장하는 장례 풍습도 기록적 가치가 높다. 전통사회의 장례와 달리 오늘날 대부분은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기 때문이다. 옥녀의 정랑 윤인발은 기병(起兵)을 앞두고 있는 이괄과 합류하려고 평안도 영변으로 가기 전에 하나의 수작을 부렸다. 객사한 어느 시신을 자신으로 둔갑시켰다. 살아있는 그의 장례식을 치르게 된 것이다. 그것을 모르는 노모는 서럽게 오열했다. “빈 관곽(棺槨)을 상여에다 실었다. 윤인발이 애용하던 필묵(筆墨)과 수의(壽衣)를 관에다 넣고는 영정을 덮어 출상을 시켜야 하는 노모의 설움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냈다.”<sup>49)</sup>

이제 가면 못 올 길이니  
 영허 어어 허  
 정든 수표 다리에 놀다 가세  
 어어허 영허

상두꾼들은 윤인발이가 수표교를 자주 건너다닌 것을 아는 듯이 다리 중간에서 빈 상여를 좌우 전후로 일렁거리고만 있었다.

그러나 두건꾼들은 많았다. 친척들이다. 상여가 진행을 앞으면 그들이 엽전뿔이나 죽히 써야 한다. 앞뒤 상여체에는 짚으로 만든 등우리들이 매달려 있다. 그 등우리에 두건꾼들이 번갈아가며 넣는 엽전뿔이 쌓여져야 상현은 간다. 그제서야 앞에서 요령을 흔드는 향도꾼이 상여 앞머리를 잡아당긴다. 상여는 얼마 후

49) 류주현, 앞의 책, 73쪽.

에야 1보 전진 2보 후퇴식으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다리를 건넜다.(73~74쪽)

상두꾼, 두건꾼, 상여채, 향도꾼, 등우리 등의 단어도 이미 낯설어졌지만, 애절한 노래와 함께 상여를 끌고 가는 장면의 세밀함은 마치 장례 행렬을 현장에서 보는 듯한 실감을 준다. 특히 상두꾼들이 망자의 저승길을 빌어 ‘엽전뇨’를 벌어들이는 ‘1보 전진 2보 후퇴식’의 실랑이는 병원 영안실에서 염을 하고 입관을 하고 영구차(버스나 리무진)로 화장장이나 매장지로 이동하는 현대의 습속으로는 다시 볼 수 없는 장면이다.

대보름 풍경을 그려내고 있는 장면도 세밀한 기록화와 같다. 우선 음식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다. “보름날은 오곡밥으로 아홉 번 배를 불리고, 나무 아홉 짐을 해야 한다고 전해 오지 않는가. 잡곡류도 잘 팔렸지만 잣, 밤, 땅콩 등속의 부럼장수들로 신바람이 났다. 한 해의 액(厄)막이를 한다 해서 제웅을 만드느라고 어른아이들이 범석거렸다.”<sup>50)</sup> 오곡밥과 부럼은 요사이에도 구입해 먹는 음식이지만, ‘아홉 번’ 배를 불리고, ‘아홉 번’ 나무 짐을 해야 하는 일이라든가 제웅을 만드는 일은 기관이나 단체의 대보름 행사가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다. 특히 제웅과 관련해 “짚으로 사람 형국의 제웅을 만들어 불을 붙인다. 보름달을 향해 그것을 휘저으며 한해의 무병면액(無病免厄)을 빈다. 달을 먼저 봐야 한다고 산으로 올라가 제웅 불을 휘젓는다. 산마다 봉우리마다 불길이 탄다.”<sup>51)</sup>와 같은 전통 풍속에 대한 장면 묘사는 매우 디테일하다.

보름날 아침이면 아이들이 남의 집 문전을 찾아다니며 “내 더위 사라”고 더위를 팔아야 하지만 달이 뜨면 다리밟기(踏橋)로 범적대야 한다. 보름날 밤 광고(廣橋) 일대는 서민(庶民)들이 독점해서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양반들은 하루를 앞당겨 십사일 밤에 미리 담교놀이를 한다. 달이 뜨는 것을 계기로 해서 광고 다리 일대가 범적댄다. 이날 다리를 밟아야만 일 년 열두 달을 두고 다리 병이 없다는 것이다. … 서민과 양반은 십오일과 십사일로 나누어지고 부녀자들은 십

50) 류주현, 앞의 책, 103쪽.

51) 류주현, 앞의 책, 103~104쪽.

육일 밤의 행사로 돼 있다.

연날리기도 성행하는 풍속이다. 아이들과 젊은이들은 특히 수표교(手票橋)로 물러나와 연날리기를 한다. 밥풀에다 까팡이가루를 섞어 짓이겨 가지고 연실에다 갠질을 한다. 서로 하늘 높이 뜬 연을 열려서 연줄을 끊어 먹기를 하기 위해서다.(104쪽)

위에서 보듯 청계천 광고 일대에서 벌어진 다리밟기(답교)와 연날리기도 서민과 양반, 부녀자들이 날짜를 달리 했다는 사실이라든가, 더위를 피하고 다리 병을 앓지 않으려는 백성들의 평범한 소망이 그 풍속에 내포된 점을 표현한 것은 『통곡』이 보여주는 입체적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사초롱을 앞세운 혼인길에서 조례를 치르고 신부와 함께 제집으로 돌아가는 신랑을 호위하며 말을 타고 다리를 건너는 초립동(草笠童)이의 모습을 그린 혼례 장면도 이제는 사극이나 민속 행사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기록이다.

이밖에 굿을 다룬 대목도 기록적 가치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우환을 낫게 해 달라는 우환굿과 안택(安宅) 초복(招福) 초혼(招魂), 진령(鎮靈), 제역(際厄), 제재(際災) 축귀(逐鬼), 천신(薦神) 등이 일반 가정에서 하는 굿의 목적”이라는 설명에 보이는 정보 가치와 굿을 하는 집에서 “신명나게 똥땅 찰찰 굿을 하고 있었다. 굿이란 무당의 춤과 노래와 주문과 덕담으로 엮어지는 것이 아닌가.”<sup>52)</sup>라는 장면의 입장감은 돋보이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九박자의 신나는 무악(巫樂)이 절정에 있었다. 한편에서는 원무당(元巫堂)이 늙어 있었다. 본시 원무당은 그 굿을 주재(主宰)하면 된다. 데리고 다니는 창부무(倡夫巫)와 후전무당(後錢巫堂)이 춤과 노래로 흥을 돋군다. 말하자면 예무(藝巫)다. 장구는 기무(技巫)가 맡는다. … 한쪽에서 잘 자르르, 훗 자르르, 징을 울려대는 것은 악수(樂手)고, 통소와 해금(奚琴)으로 풍악을 어울리게 하는 것은 전악(典樂)이다.(187쪽)

---

52) 류주현, 앞의 책, 187쪽.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급속하게 변모된 지리 환경으로 인해 더 이상 체험할 수 없는 옛 지리를 설명한 부분도 기록적이다. 가령 “낙동(駱洞)은 회현방(會賢坊) 옆이니까 남산 밑의 마을이다. 비탈길의 골목을 끼고 산 쪽으로 올라가느라면 초가집들이 다닥 붙어 있었다. 여름에는 질고 겨울에는 빙판이 심해서 이 골목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 빈민들이었다. 빈민이지만 양반이 많이 살고 있었다.”<sup>53)</sup>는 장면이나, “도성의 서북 인왕산 너머엔 형국이 말안장처럼 생긴 안산(鞍山)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안산과 인왕산 사이에 큰 재마루가 있사온데 서북에서 도성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그 재를 넘어야 함지요. 질마재라고도 하고 모악재라고도 부릅니다.”<sup>54)</sup> 같은 대목은 『통곡』이 담고 있는 많은 지리 정보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

『통곡』의 가장 큰 기록성은 역시 언어에서 오는 듯하다. 우선 존대어와 하대어로 누구시오니까, 올시다, 올세, 올게다, 게 아무도 없느냐, 여봐라, 오렸다, 거외다, 듭시오, 읍지요, 앓으리다, 하오, 부르려므나, 보오, 물으시옵니까, 못할까, 말이외다, 이었더냐, 것이어늘, 이로세, 어떡하오, 갈소이다, 통촉합시오, 아니 되웁니다 등의 언어는 이제 사극에서나 사용되는 말이다. 또 상민의 언어로써 나오리(나리), 마님, 아씨, 부릴갑쇼, 왔읍쇼, 가져 오구 말갑쇼, 사람이더군입쇼, 웬걸입쇼, 들어보시라니갑쇼, 없었사와요, 들어 봅쇼, 예이, 맵쇼, 습지요, 그러문입쇼 등도 더 이상 일상어가 아니다. 54년 전에 집필된 『통곡』과 같은 역사소설이 이 같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후대인들은 선대의 유산과 소통할 능력을 점차 상실하고 말 것이다.

『통곡』의 단어들도 기록적이다. 단어의 보고 가운데 극히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애벌과부, 두벌과부, 옥물부리, 장작바리, 부계(북어), 괴만하다, 부액(扶腋), 아물리다, 초간하다, 방싯, 바람꽃, 날나중, 묘의(廟議), 치리, 너겁, 입마구리, 마제은(馬蹄銀), 기개세(氣蓋世), 얼레빗, 감발, 자별하다, 방갓, 때꾼하다, 공술(供述), 명모(明眸), 삼태(三台), 팔좌(八座), 제절(諸節), 참집(參集), 간성(干城), 털배자, 경일(慶日), 치참(馳參), 냇내, 언투, 태거리, 짐바리, 요요(姚姚)롭다, 내규(內

53) 류주현, 앞의 책, 186쪽.

54) 류주현, 앞의 책, 290쪽.

閨), 섬술(石酒), 왈기다, 안한(安閑), 경둥경둥, 코허리, 대뜰, 그태, 차근하다, 활웃, 굼실거리다, 눈마구리, 곤전마마, 오연하다, 지분거리다, 와석(臥席), 느신느신, 아방(我邦), 엽랑(葉囊), 허뜨리다, 허청걸음, 호적(胡笛), 어세(語勢), 군턱살, 제비턱, 팔따시, 정마꾼, 하가(何暇), 왕상거리다, 닥드리다, 서적(鼠賊), 새꼬래기, 상년(上年), 꽤롱하다, 호대하다, 청유(淸遊), 스리살짜꿍, 벌어리, 바각바각(318쪽), 황평(黃海道·平安道).

이와 같은 단어는 법제와 생활 문화가 완전히 변화된 현대의 일상에서 더는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기록적 가치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이처럼 류주현의 『통곡』은 디테일의 기록성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앞서 본 대로 이미 사라진 많은 문화와 풍속과 언어가 들어 있다. 그것도 극적 구성을 갖춘 서사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미건조한 박물관적 지식이 아니라 입체적인 기록성을 띠게 되었다.

#### 4. 결론

역사학의 목적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있다. 역사소설 또한 오늘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서사 양식이다. 역사학이 선택과 배제의 원리를 따르는 만큼 역사소설도 그러한 원리에 따라 편집과 재해석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역사소설의 관건은 역시 윤리적 보편성과 미적 고유성이다.

본고는 류주현의 『통곡』을 통해 입체적 역사로서 역사소설의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역사소설은 그 자체가 역사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고 보았다. 역사소설은 다루고 있는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제환경을 작품의 무대로 전제하는 것이고, 그것을 소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방식으로 상황 설정을 하기 때문이다. 강한 보고성과 시대적 특수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역사소설은 역사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통곡』은 백성의 관점에서 백성의 안위와 안녕을 지향한 점에서 역사적 보편성과 윤리의식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것은 또 정치사적 관점

에서도 찾을 수 있다. 반정으로 집권 인조는 불안한 왕권 때문에 이괄의 난을 대하고 호란을 당한 끝에 삼전도에서 치욕을 겪었다. 류주현의 시대도 쇠국 끝에 왕조가 패망하고 식민지로 전락했고, 그로 인해 세계사적 이념대립 속에서 분단과 동란을 경험하였다. 또한 인간적 사랑의 관점에서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곡』은 (1)부모와 자식의 사랑, (2)남녀의 사랑, (3)국가와 백성에 대한 사랑 등이 중층적으로 교직되면서 역사적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다. 또한 『통곡』은 디테일의 세밀함으로써 입체적 역사 기록의 가치를 획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복식, 장례 풍습, 대보름 풍속, 혼례, 굿, 지리, 언어 등과 같은 디테일은 그 자체가 이미 역사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소설은 역사적 사실(사건)의 소설적 입체화를 통해 역사 지식의 전승과 역사관 형성에 기여한다. 또한 역사적 사실의 배경이 되는 해당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재구성함으로써 역사 현장의 기록자 역할을 한다. 궁극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통해 자기 시대의 역사적 과제와 문제의식을 환기함으로써 과거를 통해 현재를, 현재를 통해 미래를 사유하는 입체적 역사의 지평에 도달한다.

바로 이 점이 평단과 학계의 태부족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역사소설 『통곡』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며, ‘통곡’을 통해 우리 시대를 이해하고 미래를 사유해야 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Abstract]

## The historical novel 『Tonggok』 and the value as the multidimensional history

Kim, Jae hong(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Ryu Ju-hyeon(1921-1982), who debuted in 1948 with the short story 『Troubled Streets』 in 『Baekmin』, was a writer committed to interpreting and reinterpreting history to address contemporary issues deeply by publishing a series of masterpieces include 『Chosun-Chongdokbu』, 『The Korean Empire』, 『The Daewongun』, 『Pacheonmu』, and 『Gunhakdo』. Among these, 『Tonggok』, a historical novel serialized in the 『Dong-A Ilbo』 in 1969, was published in divided into three volumes as part of a 10-volume collection in 1972.

However, critical and academic evaluations of Ju-hyeon Ryu had generally been harsh. Broadly speaking, his image as a historical novelist limited the exploration of his short and medium-length stories from the 1950s to the early 1960s, and this was the main reason excluded from discussions of post-war literature or 1950s fiction. Furthermore, the fact that he published many works through newspaper serials, classified as a popular medium, might have led to excessive neglect.

This study posits that the historical novel possesses value as historical records. The historical novel is the basis of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onditions set on the stage and sets the situations in concrete and multidimensional ways in order to realize these conditions. Therefore, the

historical novel has value as a historical record due to its strong reporting nature and inclusion of historical specificity.

『Tonggok』 secures historical universality and record value from three perspectives. First, it emphasizes the well-being and safety of the people from the people's perspective. Second, from a political history perspective, it illustrates that internal chaos in a state eventually leads to external invasions. Third, it shows universality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love. Additionally, 『Tonggok』 achieves the value of a multidimensional historical record through its detailed descriptions.

The historical novel contributes to the transmission of historical knowledge and the formation of historical perspectives by novelistically embodying historical facts(events). It also plays the role of a recorder of historical scenes by reconstructing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spects of the respective eras that serve as backgrounds for historical facts. Ultimately, it reaches the horizon of multidimensional historiography, which contemplates the present through the past and the future through the present by evoking contemporary tasks and the critical mind through historical facts. This is why Ryu Ju-hyeon's 『Tonggok』 remains significant to this day.

**Key words** : Ryu Ju-hyeon, history, historiography, historical novel, multidimensionality, universality, reportability, specificity, uniqueness

## [참고문헌]

### □ 기본자료

류주현, 『통곡』(류주현 문제작 역사소설군대전집 5부작 전 10권 제1부), 신태양사, 1972.

### □ 단행본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93(1판1쇄).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4(1판3쇄).

오인문 편, 『류주현 연구』, 도서출판 서울, 1992.

조남현, 『소설원론』, 고려원, 1991(중판).

조동일, 『한국문학통사』(제5권), 지식산업사, 2005(4판1쇄).

게오르그 루카치, 『역사소설론』(이영옥 옮김), 거름, 1987.

마르크스·엔겔스·라살레 외, 『맑스주의 문학예술논쟁』(조만영 역음), 돌베개, 1989.

사마천, 『사기 表序·書』(정범진 외 옮김), 까치, 1999(3판).

에두아르트 폭스, 『풍속의 역사 I - 풍속과 사회』(박종만 옮김), 까치, 1995(18판).

에드워드 기번, 『로마 제국 쇠망사』(테로 손더스 편집, 황건 옮김), 까치, 2010(2판4쇄).

이븐 할둔, 『역사서설』(김호동 옮김), 까치, 2009(3쇄).

츠베탕 토도로프·베르나르 포크롤·로베르 르그로, 『개인의 탄생』, 기파랑, 2022(2판1쇄).

페터 V. 지마, 『문예미학』, 을유문화사, 1993(초판1쇄).

E. H. 카, 『역사란 무엇인가』(박복희 옮김), 청년사, 1985.

H. 포터 애벗, 『서사학 강의』(우찬제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0.

### □ 논문 및 기타 자료

김명임, 「류주현 소설에 나타난 '아버지 찾기」, 『한국문예비평연구』(제23호), 2007.

홍기돈, 「'텍스트'로서 파악하는 실록대하소설의 의의와 서사전략 - 유주현의 『조선총독부』와 『대한제국』에 대하여」, 『영주어문』(제49권), 영주어문학회, 2021.

홍기돈, 「삶에 대한 인식의 두 경향 : 연기설에 묶인 주체와 '완전한 자유'를 지향하는 주체 - 류주현 소설집 『죽음이 보이는 안경』에 대하여」, 『이상리뷰』(17호), 이상문학회, 2021.

홍성암, 「역사소설의 양식 고찰 - 해방 이후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제11집),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7.

황혜경, 「류주현 소설의 이분법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한 인물 유형과 열린 결말 연구」,  
『픽션과 논픽션』(제4집), 픽션과논픽션학회, 2022.

게오르그 루카치, 「지킹엔 논쟁과 유물론 미학의 확립」, 마르크스·엔겔스·라살레 외, 『맑스주의 문학예술논쟁』(조만영 역음), 돌베개, 1989.

한스 코흐, 「지킹엔 논쟁과 문학적 현실주의의 문제」, 마르크스·엔겔스·라살레 외, 『맑스주의 문학예술논쟁』(조만영 역음), 돌베개, 1989.